



공무원 시험 준비 고달픈 '공시생' 24시

연령 풀어 더 좁은문 압박감 날로 커가고 용돈 타쓰기도 눈치

공무원시험 준비생들(공시생·公試生)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자치단체가 채용인력을 감축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행정고시 등 각종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32세)이 폐지된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공공부문 인력 1만명을 내년에 신규채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무원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 22일 광주에서는 30대 공시생이 잇따른 낙방에 좌절,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22일 오전 6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S고시원. 9급 시험을 준비중인 심모(27)씨는 눈을 뜨자마자 영어책을 챙겼다. 오전 8시 영어특강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분 전연강의실에 도착해야 한다.

심씨는 지난해 전남지역 모 대학을 졸업한 뒤 줄곧 공무원시험에만 전념해왔다. 공시생 생활 1년6개월이 지나자 취업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심씨는 당초 9급 시험 정도는 쉽게 통과할 줄 알았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그가 출사표를 던진 직렬(職別)은 행정직. 하지만 '1년 합격 목표'로 시작한 공부는 벌써 2년째 접어들었다. 심씨의 마음을 더욱 다급하게 한 것은 학원비 등 생활비다. 한달 평균 수강료 20만원, 생활비 20만원 등 60여만원의 부모에게서 받아온다.

심씨는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 쓰기도 눈치 보인다. 공무원 문턱은 더 좁아지고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심씨는 "수년간 공무원 시험 공부만 했는데, 지금 와서 포기하고 다른 공부한다는 것도 엄두가 나질 않는다"며 "압박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데, 솔직히 어찌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취업의 막대한 비용이 부담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강을 마친 후 시간을 내고 시원으로 향했다. 식대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심씨는 시골에서 보내준 김치와 김 등 밑반찬에 밥을 허겁지겁 챙겨 먹고 가방을 챙겨 고시원으로 향했다.

공시생 4년차인 임모(28)씨도 매일 새벽 일찍 기상한다. 아침 식사 후 독서실로 향한다. 그는 오전 8시부터 하루 12시간동안 문제집과 씨름한다. 임씨의 하루 평균 생활비는 3천300원. 점심 한끼(3천원)와 자판기 커피 한 잔(300원)이 전부다. 공시생 생활 4년동안 그가 쓴 돈만 수천만원. 가족·친지에게 '용돈'이라는 말을 입밖에서 꺼내기도 힘들 정도다.

임씨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험은 매년 볼 치러지는 법원 서기보(9급). 최근들어 그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응시생 수는 늘어났지만 공무원 모집인원은 줄었기 때문이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진 것이다.

임씨는 "수년간 공무원 시험 공부만 했는데, 지금 와서 포기하고 다른 공부한다는 것도 엄두가 나질 않는다"며 "압박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데, 솔직히 어찌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임씨는 "수년간 공무원 시험 공부만 했는데, 지금 와서 포기하고 다른 공부한다는 것도 엄두가 나질 않는다"며 "압박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데, 솔직히 어찌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임씨는 "수년간 공무원 시험 공부만 했는데, 지금 와서 포기하고 다른 공부한다는 것도 엄두가 나질 않는다"며 "압박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데, 솔직히 어찌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KTF 광주본부 압수수색

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3일 KTF 광주마케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께 수사관 10여명을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KTF 광주마케팅본부에 파견해 마케팅본부 사무실에 대해 7시간여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회계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23일 KTF 광주지사 마케팅본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일손을 잡지 못한 한 직원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호적상 출생일 바뀌도 정년 연장 불가"

정년을 앞둔 공무원이 호적 정정을 통해 출생 연월일을 변경했다더라도 정년을 늦출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3일 광주지청 4급 공무원 정모(59)씨가 광주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2008년 말에 아니라 2009년 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암 '확정적 의증' 진단도 보험금 줘야"

암에 대한 최종 진단은 아니더라도 의사에 의해 '확정적 의증'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3일 L보험사가 가입자 김모(49)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사 대표 진모(구속)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아 쟁권 혐의(배임수재)로 구속하고 회삿돈 횡령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조 전 사장이 참여정부 청와대 실세 등에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도 정치권에 제공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조 전 사장은 경북 성주출신으로 1990~1991년 한국통신 나주전원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나원침 (7609) 김장두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text like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and '신규사시'.

탈러트 최진실 '사채설' 수사 의뢰



○...탈러트 최진실(40·사진)이 고 안재환씨에게 사채를 빌려줬다는 혐의를 퍼뜨린 누리꾼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

○...23일 서울서초경찰에 따르면 최진실 소속사 측은 최근 증권가와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른바 '최진실 사채설'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초 유포자 색출을 의뢰했다는 것.

○...최진실 사채설'은 평소 정선희와 친분이 있던 최진실이 안재환에게 25억원의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으로, 최진실이 안재환의 빈소를 가장 먼저 찾은 것도 빛 때문이었다는 등 소문이 겹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최진실 측이 수사를 요청.

Large advertisement for '해외취업 연수생 모집!!' (Overseas Job Recruitment) featuring a group of people and text about 'JAVA 프로그래밍 개발자 과정'.

Advertisement for 'i엘리시아' (iElysia) featuring a woman's face, contact information (062)671-1199, and various service details.